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

오 정 현[†]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그들이 지각한 한국 학부모들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양육신념이 양육행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423명의 어머니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양육신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의 개인적 양육신념에 비해 사회적 양육신념이 인성보다는 지적 성취, 성숙보다는 환경 및 전체보다는 개인을 더 지향한다고 지각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전반적으로 대학교 입학을 중심으로 상당히 달라져 입학 이전에는 그 이후에 비해 합리적 지도, 과보호 및 성취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양육신념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결과를 한국사회의 교육적 현실과 연결해서 논의했다.

주요어 : 개인적 양육신념, 사회적 양육신념, 양육행동, 성취압력, 학교교육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우: 156-756)
E-mail : tjung@cau.ac.kr

부모의 양육 관련 행동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경쟁력 및 독립심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Belsky, 1984).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발달시기에 따라 자녀가 변화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과 양육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육행동에는 가치관, 태도, 신념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 특히, 부모의 양육 신념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지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심을 두었다(Miller, 1988).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변화하는데 이와 함께 양육신념도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개인적인 양육신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나 기대 및 평가체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한국사회의 학업성취 지향적 특성은 학부모에게 상당한 압력 행사한다(황창연, 1996).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부모가 지각한 다른 학부모들의 양육신념을 들 수 있다. 어떤 부모가 대다수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과 다른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그 부모는 자신의 양육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 부모가 지각한 다른 학부모의 양육신념,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취압

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은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절에서는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겠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McGillicuddy-De Lisi(1985)에 따르면, 일생동안 개인은 자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그 발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신념은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개인 내부의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부모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찰과 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일련의 부모의 신념체계는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육과 관련된 신념은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인지적 구성체로서, 부모의 행동,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다(전경숙, 1992). 이러한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Luster & Rhoades, 1989), 자녀교육의 목표와 가치(Hoffman, 1988),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Stevenson, Chen & Uttal, 1990)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총명성에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Knight, 1981). 같은 맥락에서, 자녀의 실제 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아동의 개별 특성이 결과적으로 부모의 양육신념을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게 된다(Entwisle & Hayduk, 198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신념은 개인적 특성 및 그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회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지는 목표는 자녀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 자녀가 미래에 자신의 자녀를 위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문화마다 고유한 미덕을 자녀에게 학습시키는 것 등이다(LeVine, 197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녀양육의 특수한 전략은 문화집단마다 다르고, 가정의 환경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녀교육관에 관한 것으로, 자녀교육관을 주로 아동중심 교육관과 성인중심 교육관으로 구분한다(김성옥, 1994; 이원형, 1983). 아동중심 교육관은 자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반면, 성인중심 교육관은 지적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발달이 학습과 환경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안지영, 2001).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보면, 성인중심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이원형, 1983) 아동중심 교육관의 어머니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이정희, 1986).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중심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과보호와 적극적 관여 및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보였다(김성옥, 1994).

부모들은 개인적인 양육신념과 함께 한국사회의 다른 학부모들이 어떠한 양육신념을 가

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지각된 전반적 양육신념은 한국사회 학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추론된 결과인데, 오늘날 한국사회의 학령기 아동의 자녀양육은 상당부분이 교육과 관련된다. 소위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학력주의, 승문주의, 일반적 잠재력을 중시하는 능력관, 집단적 서열의식, 입신양명적 교육관, 가족주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경근, 1998).

이러한 추론된 양육신념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육신념과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차원에서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각된 전반적인 양육신념이 각 개인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각된 전반적인 양육신념은 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 관련 이러한 지각된 내용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과 지각된 양육신념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양육신념이 이어서 알아볼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양육행동과 성취압력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김지신,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Symonds(1949)는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양육행동을 구분하였고,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적대심-온정, 제한-허용,

과보호-방임의 3요인으로 보았고, Baumrind (1967)는 양육태도를 권위형, 엄격자애형, 그리고 허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양육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모는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자신의 양육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Erikson (1963)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의 부모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정과 사회화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 그리고 언어습득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기 자녀의 부모는 신체적 성장을 격려하고 스스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래들과 협동적 작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고 자녀를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며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과 관련해서 볼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처벌적이거나, 무관심하고 방임하기보다는, 자녀가 각 발달단계의 과업과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도록 적당한 관심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성옥, 1994). 그러나 실제로 부모들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합당한 행동보다는 상황적 특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하자면, 높은 수준의 가치보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능적 적응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양육은 자녀의 대학진학 혹은 상위학교로의 진학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동아일보, 2001. 9. 16일 기사), 조사 대상 학부모의 39.8%가 자녀 사교육의 이유로 다른 자녀

들보다 앞서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단계에 따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인식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김희복, 1992; 조성인, 2001). 즉,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성적 경쟁이 없는 취학 전과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양한 방면의 능력을 키우고자 하지만,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학업성적을 위한 사교육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독립성 및 의존성 정도와 깊이 관련될 수 있다. 이 때 자녀의 독립성 욕구와 자녀가 의존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 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양육에서 부모의 최대 과업이 자녀의 대학진학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 기존의 양육방식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양육행동의 변화를 야기한다.

한편, 성취압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도한 성취압력은 불안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등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노정애, 1994; 조진희, 1999).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으면 아동의 스트레스도 높았다(홍은자, 2001). 또한,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아동은 성취동기는 높았으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공격성도 높았다(탁경문, 1992).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초등학생 자녀의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며, 부모의 성취압력은 압력으로만 작용하고 실제 성적에는 자녀의 성취동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자, 1996; 안지영,

2003).

이러한 성취압력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인 경우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낮겠지만, 자녀가 중학생과 고등학교생인 경우에 이런 압력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자녀가 대학생인 학부모의 성취압력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신념과 지각된 사회적 양육신념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가(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가(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신념과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양육신념이 그들의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연구문제 3) 등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생(1-3학년), 중학생(2-3학년), 고등학교생(2-3학년) 그리고 대학생인 어머니들로 각 집단별로 200명씩 총 800여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류층 출신들이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 연령에 따라 2개교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녀들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회수

가 되지 않은 것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총 423부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58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43.18세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 190명(44.9%), 여 233명(55.1%)이었다. 어머니들의 학력은 초졸 3명(0.7%), 중졸 23명(5.4%), 고졸 438명(56.3%), 대졸 이상이 159명(37.6%)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상 1명(0.7%), 중상 54명(12.8%), 중 279명(66.0%), 중하 80명(18.9%), 하 7명(1.7%)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안지영(2001)의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하위요인 즉, ‘인성 대 지적 성취’(예로,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성숙주의/환경주의’(예로, 자녀의 성격은 자신이 타고 난 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전체/개인 강조’(예로, 자녀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로 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각 하위차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보다는 지적 성취를, 성숙주의에 비해 환경주의를, 그리고 전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함을 뜻한다. 순서별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76$, 그리고 $.71$ 이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한국 학부모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척도를 질문에 맞게 맥락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때의 신뢰도는 요인별로 Cronbach $\alpha = 0.84, 0.74$, 그리고 0.87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임희수(2001)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

제’, ‘지시/통제’, ‘거부/적대’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합리적 지도’(예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가르쳐 준다.), ‘과보호’(예로, 자녀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하다.), ‘지시/통제’(예로, 자녀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제한할 때가 많다.) 등 3요인을 사용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각 하위차원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차원의 특성이 큼을 의미한다. 순서별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2, 0.77, \text{ 그리고 } 0.81$ 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홍은자(2000)의 척도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예로, 내 자녀가 학교성적이 떨어지면 꾸중을 한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압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1$ 이었다.

결 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여기서는 개인적 양육신념이라고 명명함)과 어머니가 지각한 한국 학부모의 양육신념(여기서는 사회적 양육신념으로 명명함)의 점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 및 사회적 양육신념의 각 하위요인 별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이나 사회적 양육신념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사회적 양육신념의 차이를 각 하위요인별 평균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성/지적 성취, 성숙/환경 및 전체/개인 및 전체/개인 등 모든 하위차원에서 사회적 양육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 순서별로 $t_{(422)} =$

표 1.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사회적 양육신념의 기술통계치

연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균
개인적 양육신념					
인성/지적 성취	2.77(.84)	2.89(1.03)	3.03(.97)	2.90(.93)	2.90(.93)
성숙/환경	4.58(.72)	4.68(1.00)	4.56(.88)	4.61(.87)	4.61(.87)
전체/개인	3.69(.89)	3.69(.93)	3.87(.86)	3.63(.76)	3.72(.86)
사회적 양육신념					
인성/지적 성취	4.39(1.47)	4.22(1.60)	4.00(1.44)	4.43(1.47)	4.25(1.50)
성숙/환경	4.56(.72)	4.77(.96)	4.70(.94)	4.84(.96)	4.71(.90)
전체/개인	4.68(1.14)	4.53(1.28)	4.41(1.13)	4.37(1.24)	4.50(1.20)

주. 측정은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 성취, 환경 및 개인을 지향하는 신념을 의미함.

-16.95, -2.18, -12.34, $p < .05$.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신보다는 다른 학부모들이 인성보다는 지적 성취, 성숙보다는 환경 그리고 전체보다는 개인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에 대한 점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 및 성취압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요인 및 성취압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 간 차이를 표 2에 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지도와 과보호의 점수에서 대학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지시/통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성취압력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대학교를 분수령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등학생도 여전히 어머니의 지도와 과보호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 양육신념이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과 갖는 상관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양육신념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양육신념과는 무관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에서 인성/지적 차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차원인 합리적 지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과보호, 지시/통제 및 성취압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지적차원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과보호하고 지시 및 통제하고 성취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에서 성숙/환경 차원은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세 집단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과보호, 지시/통제 및 성취압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녀의 발달이 교육과 학습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과보호하고 지시 및 통제하며 높은 성취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차원인 전체/개인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의 기술통계치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	연령				$F(3, 41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리적 지도	3.97(.53) ^a	3.87(.49) ^a	3.82(.48) ^a	3.69(.55) ^b	5.02 ^{**}
과보호	2.85(.53) ^a	2.85(.60) ^a	2.75(.55) ^a	2.57(.64) ^b	5.10 ^{**}
지시/통제	3.63(.54) ^a	3.31(.62) ^b	3.12(.74) ^c	2.97(.78) ^c	18.42 ^{***}
성취압력	3.16(.59) ^a	3.48(.61) ^b	3.36(.65) ^b	3.13(.65) ^a	7.57 ^{***}

주. 축정은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표 3. 양육신념이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과 갖는 상관 ()는 지각된 양육신념과의 상관

양육행동	양육신념: 인성/지적 성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리적 지도	-.49** (.08)	-.20* (-.15)	-.19* (.05)	.29** (-.06)
과보호	.38** (-.01)	.31** (-.07)	.32** (-.08)	.24* (-.04)
지시/통제	.30** (-.02)	.26** (-.01)	.36** (-.09)	-.01(-.15)
성취압력	.42** (-.07)	.42** (.03)	.50** (-.04)	.24* (-.09)
양육신념: 성숙/환경				
합리적 지도	.06 (.19)	.17 (.22*)	-.02 (.19)	.24* (.09)
과보호	.13 (.12)	.33** (.09)	.18 (.00)	.27** (.01)
지시/통제	.07 (.10)	.34** (.15)	.27** (.15)	.32** (.05)
성취압력	.12 (.07)	.45** (.16)	.34** (.19)	.29** (.19)
양육신념: 전체/개인				
합리적 지도	-.39** (.06)	-.03(-.09)	-.18 (.09)	-.12 (.04)
과보호	.20* (.10)	.32** (.03)	.12(-.06)	.07 (-.17)
지시/통제	.15 (.09)	.20* (.09)	.16(-.06)	-.16(-.22*)
성취압력	.29** (.04)	.38** (.05)	.35** (.02)	.16 (-.16)

차원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집단에 한해서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부모가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할수록 자녀를 과보호하고 지시 및 통제하고 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 그리고 사회적 양육신념이라고 칭한 그들이 지각한 한국 학부모의 양육신념, 그리고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적 양육신념과 사회적 양육신념이 양육행동 및 성취압

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먼저,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과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양육신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육신념이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것이다(Entwisle & Hayduk, 1981; Rossi, 1980). 이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특성들을 자신의 양육신념으로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은 지적 성취보다는 인성 중심적이고 성숙보다는 환경 그리고 개인보다는 전체중심이었다. 성숙 대 환경의 상대적 사회적 바람

직성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사회는 인성과 전체중심을 그에 대응하는 지적 성취나 개인중심보다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지각한 한국 학부모의 양육신념은 좀 더 지적인 성취 지향적이고 환경 중심적이고 개인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신과는 달리 다른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 그리고 집단의 공동체적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더 중시한다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각적 편파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외적으로 지시/통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차원에서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합리적 지도와 과보호에서 대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았으며 성취압력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높고 대학교에서 낮았다. 이것은 자녀의 대학 입시 이전과 이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이 대학입시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에게 보이는 관여수준이 다른 연령의 자녀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자녀가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인정에서 나온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과보호나 합리적 지도 및 성취압력이 고등학교 자녀에서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대학입

시라고 하는 과업의 종결에 따른 무관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변화패턴을 놓고 볼 때, 어머니들이 보고한 자신의 양육신념보다는 그들이 지각한 한국 학부모의 양육신념이 실제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지적 성취보다는 인성을 더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전체 집단을 더 중시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양육행동이 개인의 학업 성취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어머니들은 지적 성취와 개인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양육신념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양육신념은 양육행동과 무관했다. 그래서 지적인 성취를 강조할수록 합리적 지도를 덜 하고 대신에 과보호와 지시 및 통제 그리고 성취압력을 더 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성숙보다는 환경을 강조하고 전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할수록 과보호와 지시 및 통제 그리고 성취압력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대학입학을 중심으로 한 자녀교육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부모의 내적인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어머니들이 지각한 사회적 양육신념이 양육행동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사회적 양육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양육행동의 점수를 볼 때, 아마도 사회적 양육신념이 모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단지 개인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대한 지각에서 자신과 다른 부모의 양육신념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두 유형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입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령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계점으로는 양육신념이나 양육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사건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거나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근 (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학연구*, 41(4), 87-105.
- 김성옥 (1994).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복 (1992).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 지역 중 간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정에 (199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문적 자아 개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외 및 대응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인 (2001). 교육열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희 (1999).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경문 (1992).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창연 (1996). 취학전 교육의 팽창과 정도, 팽창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2), 57-76.
- 홍은자 (2000).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Entwisle, D. R., & Hayduk, L. A. (1981). Academic

- expectations and the school attainment of young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4, 34-5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G., & Dickson, W. P. (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 Hoffman, L. 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In W. Damon, R. A. Lewine, P. M. Miller, & M. M. West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Vol 1, pp. 99-122). San Francisco, CA: Jossey Press.
- Knight, R. (1981). Parents' beliefs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 role of experience. In A. R. Nesdale, C. Pratt, R. Grieve, J. Field, D. Illingworth, & J. Hogben (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pp. 226-229). Perth: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 Levine, R. A. (1988).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R. A. Levine, P. M. Miller, & M. M. West (Vol.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 (Vol 40, pp. 3-11). San Francisco, CA: Jossey Press.
- Luster, T., & Rhoades, K. (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Stevenson, H. W., Chen, C., & Uttal, D. H. (1990). Beliefs and achievement: A study of Black, White and Hispan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508-523.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6. 9.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2. 11.

게 재 결 정 일 : 2006. 12. 25.

Variation in Mother's Parenting Style Dependent on Their Children's school Age

Jung Hyun Oh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mother's individual and perceived other Korean parents' parenting beliefs, parenting behavior and accomplishment-oriented pressure in relation to their children's school stage. Data were collected from 423 mothers who had children attending primary, middle, high school or univers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dividual and perceived social parenting beliefs among children's school stages. However, perceived social parenting beliefs were higher than mother's individual ones, meaning that mothers perceived other Korean mothers as oriented more toward intellectual achievement than personality education, more toward maturation than environment, and more toward individual than group. Mother's parenting behavior varied largely at the point of their children's college entrance. Mother's children were over-protected, rationally guided, and pressed for school achievement until they graduated from high school. Finally, mother's individual parenting beliefs were associated somewhat strongly with their parenting behavior.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educational contexts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Individual parenting beliefs, social parenting beliefs, parenting behavior, accomplishment-oriented pressure, and school education.